

## 경계에 대하여 At a Boundary

김현섭(고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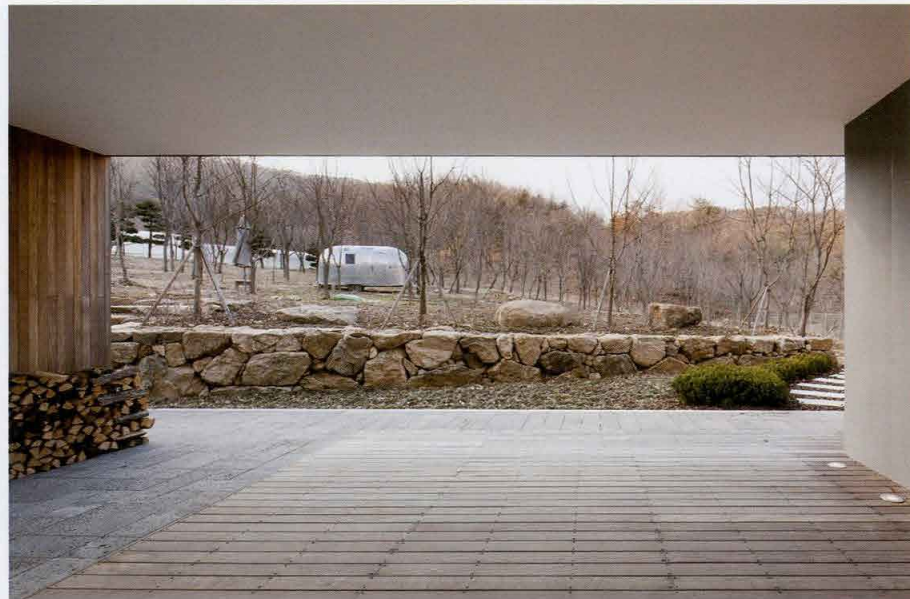
Kim, Hyonsob (Korea University)

하이데거에 따르면 '경계'란 무언가가 종결되는 지점이 아니라 그것의 현존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러한 경계를 규정하고 한정된 영역에 장소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집짓기(Bauen)'에 다름 아니다. 돌이켜 가능컨대 정말 그렇다. 원시 모두막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땅에 흔적을 남기고 말뚝이나 돌을 세움으로써 피(彼)와 아(我)의 영역을 한정했으리라. 거기서부터 거주 시작되고, 주거가 형성되었으며, 결국 존재에 대한 고찰이 잉태되었다.

이동훈은 자신의 첫 프로젝트인 포천주택이 땅의 경계를 정의하고 영역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했음을 천명한다. 수목원 경내의 2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요구된 최소의 내부공간이 필연적으로 외부 영역에 대한 적절한 풀어냄과 조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가 동원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담장이었다. 동측의 진입로와 너른 안마당을 구획하기 위한 벽돌 담장, 출입구의 목재 담장, 뒤뜰과 텃밭 사이의 나지막한 막돌 축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제 각각의 방법으로 새로이 마름된 장소에 형태를 부여하며, 엄격한 구분이나 모호한 교차를 통해 영역 안과 밖을 끊고 맺어준다. 이 가운데 특히 동측의 벽돌 담장은 주택 전체의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하겠다. 진입로를 따라 가로로 길게 축조되어 멀찌감치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이끌기 때문이다. 허나 소담한 벽돌 재질과는 대조적으로 담장 너머 저편의 속내를 그리 호락호락하게 내보이지 않는다. 담장 안과 밖의 1m 높이 차는 지형을 활용한 사적 영역에의 배려에 기인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높은 울타리가 내포한 배타성은 한적한 전원보다 삼엄한 도시의 풍경에 더 어울릴 법하다. 건축가의 담장에 대한 천착은 외부공간의 내적 전유, 거꾸로 말해 내부공간의 외적 확장을 향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의 고찰은 자연스럽게 건물 자체의 실내외 공간 전이로 유도된다. 경계와 영역 사이의 방정식이 외부의 담장만을 변수로 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건물 자체의 벽체와 테라스는 이 공식의 또 다른 주요 변수다. 안마당을 향한 2층 거실의 전면 유리창은 안팎의 시각적 경계를 허무는 전형적 요소인 반면, 나머지 벽면의 목재 외피는 건물의 실용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함의를 내비친다. 그리고 옥상의 테라스는 땅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하늘마당이며, 1층의 테라스는 건물의 2층 물체를 지붕으로 삼고 있는 훨씬 차폐된 옥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사실에서 실내외 공간 전이에 관한 건축가의 기발한 착상을 논하긴 힘들다. 옥상 테라스의 유리 난간이 그나마 참신하달까. (본고와 다

른 주제인 1, 2층 공간의 도치는 논외로 하자.) 오히려 여기서 더욱 눈여겨볼 점은 다름 아닌 목재 데크와 안마당의 관계에 있다. 20cm에 불과한 단차는 두 공간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접속을 유발하며 경계를 흐린다. 건축가가 한옥의 마당을 상정했지만 얇은 기단은 꽤나 낮선데, 건물이 마치 기단 턱밑까지 마당 속으로 함몰된 듯한 긴장감을 준다. 그 앞의 뗏돌들을 보라. 윤곽만을 남긴 채 깊이 침잠해 있지 않은가!

1층 테라스와 마당 사이의 미묘한 경계는 흥미롭게도 건축가와 조경가의 모호한 경계와 평행을 이룬다. 어디까지가 건축가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조경가의 영역일까? 이 프로젝트에서 건축가는 건축주가 고용한 별도의 조경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작업한 듯 보인다. 두 영역이 겹쳐진 데크-뗏돌-마당의 긴장은 충분히 즐길 만하나, 마당을 완전히 비워둔 건축가와 그 안의 일부를 채우도록 요청받은 조경가의 작업에는 좁히지 못한 틈새가 감지된다. 이는 아마도 아직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온 조경가의 역할에서 연유한 듯하고, 앞으로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할 건축과 조경의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그 협업은 보다 총체적인 집짓기를 지향해야 하는데, 여기 내포된 경계의 교차는 시작과 종결의 의미를 포월(抱越)한다. 이로부터 보다 총체적인 거주와 존재가 비롯될 터이다.



While the roof terrace is completely open to the sky, the terrace downstairs is covered by the volume of the upstairs overhead.



The architect's scrutiny of the fence indicates an internalisation of external space, that is, the desire for internal space to expand outwards.





The brick fence along the driveway to the east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one's first impression of the house, drawing visitors' attention from afar. Even when rendered in humble material, the fence does not easily reveal what is inside.

According to Heidegger, a 'boundary' is not at the point at which something halts, but the point from which its presence originates. This became the inception of 'bauen (building)', considering early humans used posts or a stone for the purposes of demarcation, separating themselves from others, which led to the notion of the dwelling place and eventually our contemplation about our existence. Tonghoon Lee declares his first project, Pocheon House, to be based on defining boundaries and demarcating areas. Lee responded via a fence to a client's request to minimise her internal space, in a 650m<sup>2</sup> arboretum, demanding control over appropriate levels of tension and relaxation against an external area. Each of the brick fences delineate a driveway to the east and a courtyard, with a wooden fence around the entrance, and a stone fence around a backyard, while a forming space relates

the spaces inside and outside the area through strict separation and ambiguous intercrossing. The brick fence along the driveway to the east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one's first impression of the house, drawing visitors' attention from afar. Even when rendered in humble material, the fence does not easily reveal what is inside.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he fence through the topography reflects the architect's concern for the inhabitant's privacy. The architect's scrutiny of the fence indicates an internalisation of external space, that is, the desire for internal space to expand outwards. Such contemplation has led to the spatial transition of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as the fence outside is not the only parameter for boundary and area; walls and terraces are obviously subject to parameters as well. Floor-to-ceiling glazing in liv-

ing rooms upstairs, facing courtyard, blurs visual boundaries; whilst wooden finish on the other walls implies functionality of the building and privacy. While the roof terrace is completely open to the sky, the terrace downstairs is covered by the volume of the upstairs overhead.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the wooden deck and the courtyard, a height difference of 20cm promotes easy access between the two spaces, blurring the definitive boundary line. In spite of the idea of the traditional garden in the Hanok the architect introduced thin stylobates—unfamiliar to the Hanok—creating a tension as if the building had collapsed into the yard; footstones laid in front seem submerged, only leaving traces. The boundary between the terrace downstairs and garden is parallel to the ambiguous boundary between architect and landscape architect. Which

areas belong to architecture, and which to landscape design? Lee seems to have worked at a distance with the landscape architect whom the client has hired. As much as the tension between deck, footstones and garden is enjoyable, a gap in the landscaping of the garden is unmissable, an area completely emptied by the architect. Presuming it is caused by an underestimation in that of the landscape architects' role, it suggests that a more intimate collaboration between th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would be preferable in the future. Such collaborations would pursue 'integral building', which embody the intercrossing of boundaries, transcending their beginning and end, and instigating the integrity of both the dwelling and being within.